

골 무기질 밀도에 대한 칼슘통로차단제의 영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정유석*, 안승재, 김용범, 이동원, 정현철, 이수봉, 곽임수, 니하연

목적 : 칼슘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아세포에 칼슘통로가 존재하고, 이 통로를 차단하는 경우 골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현재 고혈압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칼슘통로차단제가 골 무기질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3년간 본원에서 처음 고혈압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 폐경기 여성 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78명의 환자들을 칼슘통로차단제를 사용한 A군(39명)과 다른 항고혈압약제(이뇨제는 제외)를 사용한 B군 (39명)으로 나누었다.

두 군의 모든 환자에서 치료 시작 시와 8개월 이후에 척추와 대퇴골에 대한 골 무기질 밀도를 측정하였다.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A와 B군 각각에서 6명은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하였고, 6명은 alendronate제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각 27명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결과 : 두 군을 비교한 결과에서 척추와 대퇴골의 골 무기질 밀도가 A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는 못하였다.($P=0.220$, $P=0.187$) 호르몬 대체 요법중인 환자 군을 칼슘통로차단제 사용 유무에 따라 나누어서 비교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는 못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alendronate 사용 중인 환자군과 골다공증에 대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론 : 혈압 조절을 위해서 사용되는 칼슘통로차단제의 용량으로는 골 무기질 밀도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에서 발생한 신증후군의 임상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

이재욱, 이세한, 김성균, 김연수, 안규리, 한진석, 김성권, 이정상

노인에서의 사구체질환은 조직검사의 증가로 점차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 정확한 진단과 예후의 예측이 필요하다. 이에 연자들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증후군의 진단하에 신생검을 받은 60세 이상의 원발성 신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병리, 임상적 특징, 치료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의 수는 42명(남자 26명, 여자 16명)이었고, 원발성 신증후군은 39명, 이차성 신증후군은 3명이었다. 원발성 신증후군의 병리학적 진단은 막성 신병증 (16명, 38.1%),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9명, 21.4%), IgA 신병증(6명, 14.3%), 미세변화 신증후군(5명, 11.9%), 막중식성 사구체신염(3명, 7.1%) 순이었다. 원발성 신증후군 환자 중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환자는 23명(59.0%), 받지 않은 환자는 16명(41.0%)이었다. 면역억제치료 환자군에서 완전관해 9명(39.1%), 부분관해 2명(8.7%), 무반응 9명(39.1%)을 보였고, 3명이 사망하였다. 면역억제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의 신생검 소견은 막성 신병증 5명(31.3%),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4명(25.0%), IgA 신병증 4명(25.0%), 막중식성 사구체신염 2명(12.5%), 미세변화 신증후군 1명(6.3%)이었으며, 완전관해 4명(25.0%), 부분관해 2명(12.5%), 무반응 10명(62.5%)을 보였다. 5명의 환자에서 면역억제치료 중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경과관찰 중 사망한 환자 3명의 원인은 패혈증 1명, 이완성 심근병증 1명, 횡장암 1명이었다. 막성 신병증 환자 16명 중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환자는 11명이었으며, 이 중 3명(27.3%)이 완전관해, 2명(18.2%)이 부분관해에 도달하였고, 4명(36.4%)이 무반응을 보였으며, 2명(18.2%)이 경과관찰 중 사망하였다. 면역억제치료를 받지 않은 5명 중 2명이 완전관해에 도달하였고, 3명이 무반응이었다. 미세변화 신증후군 환자 5명 중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환자는 4명이었고, 2명이 완전관해, 1명이 무반응, 1명이 사망하였다. 면역억제치료를 받지 않은 1명은 완전관해를 보였다. 막성 신병증에서는 4명에서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 중 1명이 사망하였다. 미세변화 신증후군에서는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으로 노인인 신증후군 치료시 감염성 합병증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며, 미세변화 신증후군에서는 노인에서도 적극적인 면역억제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